



6·7 2001년 11월 27일 796호

주제기획

전진하는 세계화… 절망하는 우리 농업

서문

34페이지에 402개 미해결 문제를 담고 있었던 시에는 각료회의 선언문에 비례로 2001년에 13개 미해결문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한 간결하고 총상적으로 작성했다. 이는 각국의 반발을 소홀히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진다. 이에 WTO회원들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월 1일까지 3년간 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의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각료회의의 선언문은 서문에서는 뉴리문드의 공식 명칭을 도입해 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뉴리문드와 달리 '개도국과 최빈국'의 이름을 고려 나아가 가장 수 있는 협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건강, 안전, 환경 등의 문제를 '자유무역의 원리를 해칠 수 있는 요소'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파는 달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난다.

농업

이는 사실상 농업시장의 전면개방을 의미한다. 이미 우루과이 러운드 협상으로 우리 나라는 2004년까지 24%의 관세인하, 13.3%의 국내 보고금 촉수를 약속했으나 감축률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라는 개도국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감축률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또한 협상이 미루어지는 2005년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입이 대폭으로 늘어나고 추후수매 등 정부의 지원도 불가능해진다.

서비스

서비스 협정의 개방 요구분야는 금융·통신·시장각·법률·교육·에너지·의료 등 12개 분야, 156개 사항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개방하지 않은 것은 의료·교육·시장각·법률 등 모두 네가지다. 하지만 그 외 분야는 IMF에서 이미 개방이 된 상태에서 내년부터 진행되는 구체적 협상에서는 개방화 조치가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국내법 개정이 회두가 될 것이다. 먼저, 금융분야는 외국계 은행설립 허가 요건 제한조치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 통신에서는 외국인 자본제한 확대 문제로 개정이 될 것이다. 또한 시장각 분야에서 스크린 퀘터제도가 평가될 것이다. 교육분야는 학교설립제한에 대한 완화 입장이 최대 관심이 될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상으로는 학교를 설립하더라도 수익금을 해외로 송금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에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는 수익금을 해외로 내보낼 수 있도록 시립학교법을 개정하려는 압력이 있을 것이다.

지적재산권

특허·상표·의장 등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독점권이 국경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한편 에이즈 치료약 특허권 등에 대한 이프리카 그룹의 제기에 따라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인 'TRIPS'와 공동의 진정에 대한 신설안이 별도로 제작됐다. 이 선언문에서는 WTO회원국들의 공동보건을 보호,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약과 특허에 대해 각국의 강제실시권은 국내 수요를 주목적으로 발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는 많은 국가에서는 별 의미 없는 원칙이다.

지역무역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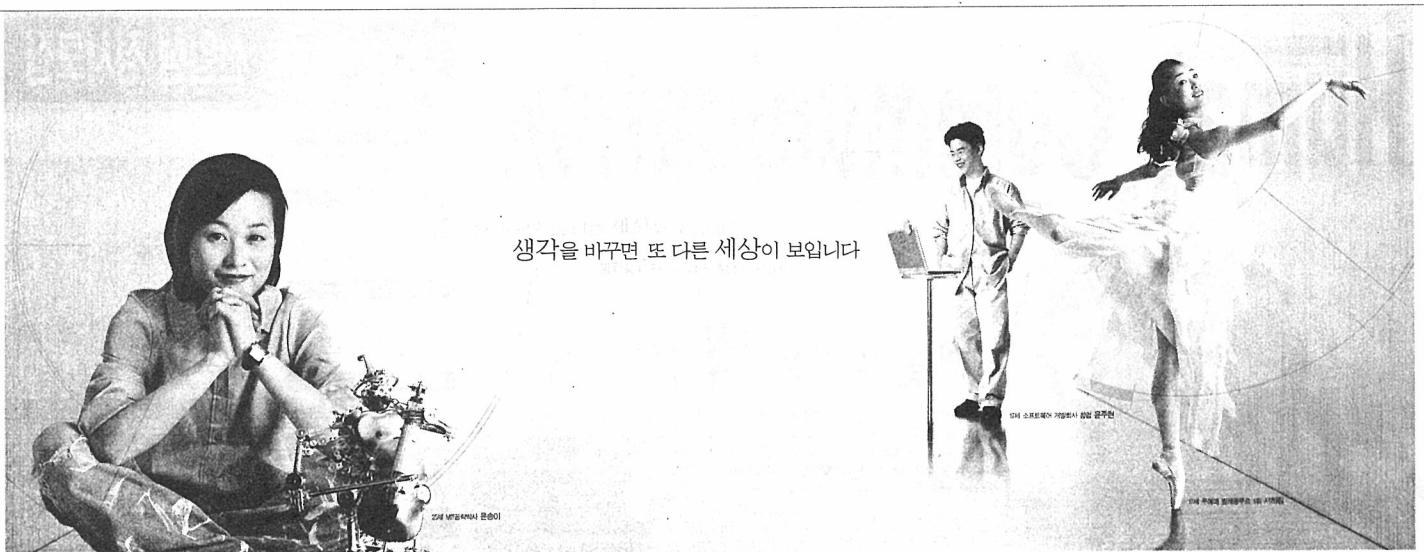
'전세계 무역자유화의 토대로서 지역무역협정의 중요성을 분명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이 기속화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철과 정부 간 협상을 진행중이고 일본과는 비즈니스 포함율, 태국·뉴질랜드와는 국제연구기관 공동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APEC 차원에서도 2004년까지 투자 및 무역 자유화를 추진키로 하는 등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움직임도 이미 개시된 바 있다.

수산 보조금 폐지

수산보조금 폐지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인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보조금 폐지가 확실시되어 영세한 수산업계의 어민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자료출처 : 사회진보연대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채택된 독립 협정 중 하나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디지털이 희망입니다

DIGITAL FRONTIER
디지털 프론티어SAMSUNG
삼성

뉴라운드 출범, 무엇을 변화시키나?



돈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



WTO 4차 각료회의의 합의문 의료분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TIRI는 학생과 공중의 건강에 대한 사랑은 몇 가지 미흡한 점은 있지만, 광중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합니다. 저번에는 에이즈(AIDS)와 같은 주요한 질병에만 적용하는 미국-스위스 협정의 주장이 강했으나, 나중에는 개도국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될 때 얼마나 영향을 발휘할지 우려됩니다.

지적재산권제도는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적재산권제도는 특허권이라는 특성상 막강한 권리입니다. 87년 이전까지는 '제3부' 부분의 특례로 인정되었지만 현재는 백화점과 치과진인 글리벤파 같은 '물질' 등에도 특허를 인정해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기술개발자들의 접근을 막아 특성화된 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오히려 기술과 자본을 독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의료시장 개방이 국민생활에 미칠 영향은 우선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나라가 목표으로 하는 외국제약회사나 기업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의 비단난 재정을 예구려고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이 제도는 의료보험제도를 민족화해 특설입원비, MRB(기기공여금상장자) 확장비용원 현행 의료체계에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기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권계층만 고급화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다수의 국민들은 절 떨어진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 '의료이용의 불평등성'이 드러나게 된다.

앞으로의 대응방향은?

먹을 수 없는 약은 안전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아 한 말이 있다. 즉 약은 안전성과 효력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에 요즘은 '싸다'라는 개념도 덧붙여야 할 것이다. 돈이 들어서 혹은 너무 비싸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국민들의 경제력에 맞는 가격정책과 의료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같은 시민단체들은 자료집 발간과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려고 한다.

전소연 기자 doban@hanmail.net

만나보기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부장 이호중(30)씨

WTO와 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각료회의로서, 향후 협상방향이 제시됐다. 산업의 전 부문에서 관세를 얕고 개방화를 추진하는 자세였다. 우리나라의 여론으로 이미 폐쇄화된 농촌에게 국내 농산물 가격을 낮추고 실질적 개방을 강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설 자리를 놓지 되었다. 특히 정부가 농업의 피해가 크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른 산업이 이익을 볼 거라는 계산으로 뉴라운드를 출범시켰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농민들의 분노는 국에 달아 있다.

정부에서 농민피해를 줄이려는 정책이 발표됐는가

아직 피해를 줄이려는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대중대통령이 "농민들도 변화해야 한다"며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는 등 회생을 강요하고 있다. 현재 농업피해의 원인은 대체증정관의 신자유주의 개방농장때문이지 농민들의 잘못이 아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신뢰할 수 있는 농민이

있을지 의문이다.

전농에서 구체적으로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WTO 쌀 수입반대, 쌀 생산비 보조, 개방농장 철폐가 우리가 요구하는 바이다. 추가방법은 있을 수 없다. 쌀 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을 개방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농촌을 망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의 전농 활동계획은

이미 전국지자체에서 정부구단과 쌀개방지지를 위한 농민들의 규탄대회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쌀기미를 끊어 살을 뿌리면서까지 시위를 벌였다. 다음 달 2일 여의도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농민들은 더 이상 농사지어 먹을 것이 없는 참혹한 상황 앞에 분노하고 있다. 농민들은 이제 더 이상 담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대량생산·유통되는

'세계화시대' 문화



뉴라운드 출범, 무엇을 변화시키나?

세계화, 여성의 빌에

족쇄를 채워라



세계화의 영향으로 여성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게 된 상황은

세계화가 가속화될수록 여성은 점차 주류부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규정하는 경제정책과 기부문화로 인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정부에게 1순위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협의 부부사업 1인 해고 조치와 현대자동차 식당 여성 노동자 해고 조치도 있었다. 이처럼 여성은 정리해고와 불안정한 노동현장에서 당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내나 딸기 때문에 담당하는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다중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세계화는 가족 공동체나 성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세계화로 인해 제3세계가 갖고 있는 가난은 극심화될 것이다. 이는 가정의 빈곤의 심화를 가져오고 여성의 빈곤과 함께 여성의 회상을 강요당하게 된다. 또한 여성의 삶을 폐기로 한 인신매매도 확산된다.

이런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나름의 대응 방향이 있는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많게 연구가 필요하다.

만나보기 - 외국인 학생이 본 우리학교

외대를 느끼는 색다른 목소리



우리 학교에 외국국적을 가지고 재학하는 학생은 모두 10명이고 우리 학교에 외한학생으로 온 학생은 12명에 이른다. 국적은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멀리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편집자

외대에 입학하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니 제프슨 카스티요(아이자 제프슨)·9년에 외교관으로 버지를 따라온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배우는데 관심이 있어요.

쉬 지아 저는 중국에서 한국 친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

국어를 잘하면서 좋았다고 생각해요. 외대에

온 이유는 각각 7월에 외대에 왔었는데 학교

같이 조용하고 좋았어요. 베트남의 대학 근처

는 조용하기 때문에 학교 주변이 시끄러울 것

은 좀 이상해요.

나카무라 미끼(이하 미끼) 저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외대에 왔어요. 러시아에 있을

때 한국어 실습 선생님으로부터 외대가 좋다고

들었어요. 지난해에는 두 달동안 광양의 김일

성종합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외대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어떤가요

제프슨·교부한다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좋

았어요.

쉬 지아 특별한 느낌이 없었어요. 아! 신이

없어서 좋았어요. 걸어다니기가 편해서.



리아 모스코비나에서 온 드미트리 미리네코군은 오는 9월에 교환학생으로 우리학교에 왔다.

미끼·처음에 연세대에 있었을 때 연세대는

냉정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내는 조금 가정적 분위기가 나고 따뜻해요.

디마·외대의 분위기는 친절해요. 사람들은

이주 친절해요. 지금은 연수원에서 공부하는데

연수원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 건

불들은 난방이 안되고 난방기도 고장처럼 모

양이 이상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아주

좋아요. 유머도 많이 하고

고 외대에 왔습니다.

드미트리 미리네코(아래 디마) 저는 교환

프로그램으로 외대에 왔어요. 러시아에 있을

때 한국어 실습 선생님으로부터 외대가 좋다고

들었어요. 지난해에는 두 달동안 광양의 김일

성종합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외대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어떤가요

제프슨·교부한다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좋

았어요.

쉬 지아 특별한 느낌이 없었어요. 아! 신이

없어서 좋았어요. 걸어다니기 편해서.

외대의 차기 나라 대학생의 차이점은

제프슨·칠레에서 대학을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칠레 대학생들은 나이트클럽 많이

가고 파티도 많이 하는데 외대 학생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또 학교 축제 때 사람이나 너무 없었어요.

쉬 지아·중국에서는 대학시험이 어려워서

대학에 들어가면 모두 결승점 공부해요. 주말

에는 공부를 해요 그리고 중국 대학생들은 열

색을 할 수 없어요.

미끼·일본의 대학생들은 실컷 놀아요. 저는

지금 태국에서 처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비판공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외대 학생들은 좀 열정적인 것 같아요.

등록금이 많아서 데도 하고 일본에서는 등

록금이 유틸리도 그냥 받는 편입니다.

디마·모스크바의 대학생들은 이린비트를

아주 많이 해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놀기만 해요. 러시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학생들은 시험 사이에는 노는 것 외

에 다른 일 없다"

학교에 있으면 등록금을 비롯하여 많은 시위와 집회가 있는데 이것을 볼 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제프슨·가끔 신기하다고 생각하지만 별 관

심하지요.

쉬 지아·중국은 모두 국립대학교이므로 학

비에 대한 시위는 없어요. 처음에 외대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볼 때 신기했어요.

중국에서는 시위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 학생들은 우리에게 우리 나라라는 생각이 없어요. 개인이나 따로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행동할 수 없어요.

미끼·보통 사람은 시위를 하지 않아요. 일본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같은 특별한 사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참석하고 싶지 않아요.

디마·소련에서 때에는 학생들의 시위도 없었고 시위를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 영향으로 아직까지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러시아 학생들은 시위가 다른 나라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러시아의 대학에는 한 대 모여 있지 않아서 같이 모이기가 힘듭니다.

외대에 다니면서 가장 힘든점은 무엇인가?

제프슨·수업 듣는 것이 힘들어요. 처음에는 내용이 어려워서 경정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졋어요.

쉬 지아·나는 앞으로의 고민이 많은데, 입학식 때 솔라리스 교수과의 말을 알아 들을 수 있을지 걱정돼요. 한국 사람들과 어떻게 지낼지도 걱정돼고요.

미끼·레포트가 너무 많아요. 지난 1학기 때에는 20개 이상 레포트를 냈어요.

저는 한국인 보다 3배 이상 시간이 걸리요.

책을 봐야 꾸가 중한 것인지 몰라서 시험 볼 때도 힘들어요.

제프슨·(미끼에게) 외국 사람이라 많이 도와주지 않나요?

미끼·도와 주고 싶어도 학생들이 많이 바쁘니까 도와주기 힘들까요.

디마·별로 어려운 것은 없지만 학생식당 음식이 좀 맵어요.

학교에 바리는 꿈은 무엇인가?

제프슨·외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 강좌가 있

고 한국에는 비판공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외대 학생들은 좀 열정적인 것 같아요.

등록금이 많아서 데도 하고 일본에서는 등록금이 유틸리도 그냥 받는 편입니다.

미끼·모스크바의 대학생들은 이린비트를

아주 많이 해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놀기만 해요. 러시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학생들은 시험 사이에는 노는 것 외

에 다른 일 없다"

제프슨·시위를 거친 후에는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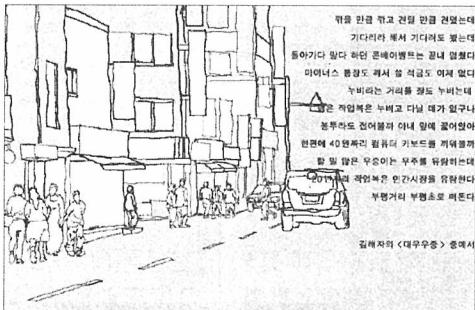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생들이

한 번 더 학교에 올라온다

보도 - 2001 노동만화전

만화속 우리네 자화상



'노동생활'

이것을 본 당신은 '그때 맞아'라는 반응보다는 아마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다. 언제부턴가 노동에 대한 말은 우리가 친숙하지 않아보이다. 이는 특정 집단에서나 쓰는 이질적인 단어로 우리 기억 속에서 각인되어 점점 멀어져 간 것이다. 그리고 노동이란 말을 떠이놓고 우리의 생활 면면을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어느 날 깊이가 날라 온 일방적인 해고동지사 받고 싸우는 것도 잠시, 시장이 지난주 폭 아내와 자식들이 눈에 밟혀 길이한 등로, 자존심 다 버리기며 지하철에서 3개에 친한 하루를 보내는 아버지, 손자의 재물을 보며 어들을 보낼 나이암에도 배불리는 어떤 손자를 위해 오늘 부대행사가 함께 치뤄졌다.

만나보기 - 대학생이 만난 우리시대 문화인 김인규 교사

"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표현이라도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를 보호해야"



대한민국 현직교사 최초로 알뜰으로 온라인 상에 등장한 미술교사 김인규씨. 그의 그 아내의 일들은 아름답게 형상화된 그 무엇이 아닌가. 행운은 남자와 여성의 어려움을 그 자체였다. 사회적으로 의심 논의에 했던 전 미술교사 김인규씨. 피운 이후 징계처분 3개월로 교단에서 물러나 현재 재물증인 김씨. 문제의 작품과 그의 가슴에 내포된 '음의 철학'을 들여다보았다.

작품에서 진정으로 의도한 바는 무엇인가? 산업사회에서 '꼴'은 일정한 상품으로 규격화되고 그 규격에 자신의 몸을 소비하는 포로가 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꼴'이 가지고 있는 어디에 의미가 제기된 채 삶의 기호로 과언되는 것에 반대하여 진짜 몸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어머니의 손에서는 삶의 여러 가지 정신적 의미를 발전할 수 있지 않나. 몸과 정신

진정된 여러 작품 속에는 흔히 만화 하면 떠오르는 몇진 8등신 소녀나 무쇠같은 무너지리를 뒤드으며 악당을 물리치는 로봇은 구경하기 힘들다. 대신 부당한 기업을 맞아 빨간 피를 머리에 두른 근로자나 아이들 등을 업고 대모현장에 나온 부녀자, 집에서 주방 일을 하는 우리 어머니. 부모들이 일간집 텁 빙 집을 흘로 지키는 어린이들이 비단 정신작품의 주제로 유통된다. 한편 40주짜리 페리의 거울로 깨워졌거나 많은 우아이는 우주를 뒤흔드는데 2011년 렉터박은 한국시장을 유럽현장에 부행거리 부행으로 떠돈다.

김종원 기자 bpss.korea.com

도 자신보다 큰 리카카를 끌고 새벽시장에 나가는 할머니,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이질적이여서는 노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바로 노동자들이었다.

이런 노동자들의 삶을 예술이란 방식으로 재해석해 낸 것을 노동문화화 지향한다. 그런 노동문화 속에서 끗이란 한자처럼 차지하고 있던 '노동문화'가 얼마 전 세상에 나왔다. 지난 17일(토)부터 2일(토) 서울 청소년 직업체험 센터 히어에서 '제회 노동문화전시회'가 열렸다. 규모는 작지만 내실 있는 전시회로 저 뛰친 이번 행사는 만화·시대전, '작가전', '판화전' 등과 같은 전시와 노동문화를 주제로 '노동 애니메션·상영회', '캐릭터 만화기' 등 여러 부대행사가 함께 치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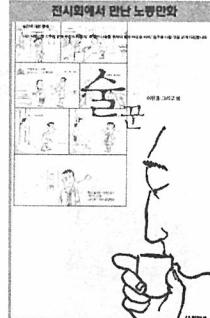
기자 김종원 기자 bpss.korea.com

이번 전시회를 찾은 배경(27)씨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차 노동과는 차별화되는 직업으로 바뀌고 있다. 노동의 가치를 통해 개인의 기회를 취득·풀어내는'이라는 관점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홍보관계자는 "노동이란 무거운 소재가 미화로 풀어지면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다. 하니 대학 동아리 활동의 작품을 이번 자리에 전시하지 못한 것이 못이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렇듯 노동이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눈에 쉽게 들어오고 의식전환의 쉬운 만화를 통해 들어내기 전문가의 노동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찾았던 현대인은 물론 노동문화 전시회에 대한 호평과 창출했다. 이런 우리도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노동문화의 발전을 지켜보는 건 어떠할까?

기자 김종원 기자 bpss.korea.com

● 노동문화 전시회



◎ 술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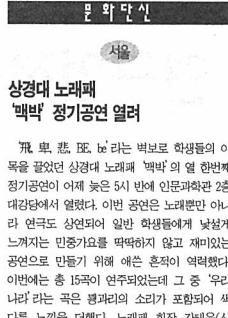
운동권 만화가 이은희의 술에 관한 사례를 담은 만화이다. 술에 의해 일어나는 우리네 소시민의 삶을 담아보면서 점점 어린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다.

술로 인해 시작된 인생이라는 저지의 삶이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게 그려지고 있는 이 만화에는 종종 만화는 장르가 어린아이들의 정유물이라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생활에 서 얼마나 많은 걸 담아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시도로 광가발된다.

술에 얹힌 에피소드와 술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술꾼'에서는 우리 인생에서가 모두 늙어들어 있다.

기자 김종원 기자 bpss.korea.com

● 운인



상경대 노래파 '백박' 정기공연 열려

düzey 悲 BE. BE.'라는 벽보로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던 상경대 노래파 '백박'의 열 한 번째 정기공연이 이어 늦은 5시 반에 인문대학관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노래뿐만 아니라 연극도 상연하여 일반 학생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민중가요를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는 공연으로 만들기 위해 애쓴 화려한 역할했다.

이번에는 총 15곡이 연주되었는데 그 중 '우리 나라도'라는 곡은 팽가리의 소리가 포함되어 색다른 느낌을 더했다. 노래파 회장 경태우(상경, 무역 00)군은 "연습을 하다 지칠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이번 공연을 계기로 우리 학생들이 민중가요를 보다 친근하게 느끼게 되었으면 한다"고 이번 공연의 취지를 밝혔다.

용인

'애드밸리(AD.VALLEY)' 광고전시회 열려

광고동아리 '애드밸리'의 전시회가 지난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3일간 압구정동 TTV존에서 열렸다. '라디오 경쟁광고'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구성원들의 작품전시나 대불이 카페 콘테스트, 광고 퀴즈대회, 현대 광고와 초청 강연 등의 간접적인 행사를 펼쳐졌다.

한편 이번 광고전시회를 준비한 문운재(경상·경영경영 90)군은 "처음으로 학 외에서 어떤 행사는 구성원들의 작품전시나 대불이 카페 콘테스트, 광고 퀴즈대회, 현대 광고와 초청 강연 등의 간접적인 행사를 펼쳐졌다.

기자 김종원 기자 bpss.korea.com

● 댄스힙합열전



공연 안내

댄스힙합열전

오는 21일(수)부터 내달 2일(일)까지 국립극장 달빛극장에서 펼쳐지는 '댄스 힙합열전'은 국립극장과 실협의회가 미래지향적 공연예술인들의 산실인 독립예술제가 같이 준비하는 공연이다.

세 팀에 맞는 춤을 펼쳐보이는 세 팀이 출연한다. 그 연단을 살펴보면 관객자랑의 이해하기 쉬운 춤을 주제로 한 청춘집단 가문의 '걸은 윌더랜드', 육체와 움직임을 희무로 끌어안고 관찰과 연구를 하는 '유니 퍼포먼스 온 앤 오프' 무용단은 공연 예술인들의 두드러와 달리 내 작품이 문제 된 것은 내가 혼종하는 대한 민국의 품위있는 '남자 미술교사'이기 때문이 다.

기자 김종원 기자 bpss.korea.com

● 시기별

댄스 퍼포먼스 온 앤 오프(Dance Factory On & Off) 무용단 메시지 - 0

12월 1일(토) 높은 4시간, 7시 30분

12월 2일(일) 높은 4시간, 30분

청각장애인 기관인 원더랜드(Kagwan in wonderland)

일반/대학생 : 12,000원 단체 : 10,000원
연락처 : 02-762-0185

국가정보원과 공안세력은 공동선언 역행하는 자주민보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구속 언론인 3인을 석방하라



지난 10월 23일 오전 9시를 기해 월간 자주민보 발행인 겸 편집장 이항기, 기자 박준형, 전 기자 박은증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3인의 연행과 동시에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져 출판도서(조국과 인경), (여미나, 여기도 조국입니다), (동일 참 않다), (월간 자주민보)에 대해 고문한양, 이적교양을 제작 배포 혐의 등에 의해 압수수색을 진행됐다고 밝혔다.

80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 이뤄낸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자주민보에 대한 단압은 8·15 공동선언을 역행하며 언론탄압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 반통일적 행위이다.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바라는 7천만 겨레는 8·15 공동선언 이행의 길, 통일시대를 방해하는 국가정보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동선언 이행 구속언론인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언론자수 수호 투쟁을 위해 각각 양심세력의 힘을 모아갈 것이다.

〈언론자유와 공동선언 정신, 다 함께 지켜갑시다〉

1. 자주민보 10년 보기 운동 및 선납 운동

(자주민보 10년 구독료는 30만원입니다. 국정원은 방해인을 연행하며 재정난으로 자주민보가 폐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주민에게 자주민보 선물하기

3. 자주민보 일시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4. 컴퓨터, 일반 디지털 기기, 프린터 등 기자재 기증 및 대여 운동

정기구독료 남부 계좌 국민은행 820-21-0591-950 0107기

후원금 계좌 조흥은행 379-04-315077 01미경

전화 02-3211-0101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광고

영화평 - 멤멘토

스냅 사진으로 포착한 필름 느와르

'메멘토'의 흐름로그 장면은 매우 흥미롭다. 누군가가 미리에 총을 맞아 죽어가는 모습이 스냅사진에 담겨 있다. 손으로 사진을 훈련한 사진의 전문은 선명해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씩 흐려진다. 그러나 끝내 사라지고 만다. 필름을 거꾸로 돌린 것이라는 기술적 사실을 제쳐 두는다면, 이 장면은 거의 손실증이 걸린 페터포의 상태를 재현하는 번뜩이는 상상력의 베티포가 된다. 시작부터 영화는 심상치 않다.

영화의 서사구조가 미처 거미줄처럼 꾸여있는 것 같아 '기이하리'라는 외국의 제목이 혹 관심을 향한 명령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칼럼과 해련되는 유풍과 흑백의 풍물이 차례로 교차하며 '메멘토'라는 듯한 꿈을 꾸내고 있는 꿈이다. 게다가 갈라 부분은 시간을 변주하면서 기존의 느와르보다 더욱 암울하고 역순으로 보여주면서 이 지점에서 흑백은 단순히 흑백으로도 넘나드는 베이지 색 스퍼레이드처럼 적으로 살입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실험적인 양식은 '메멘토'를 고전적 미스 테리 드라마로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메멘토'를 단순히 미스테리 그리기만 보기는 힘들다. 레너드가 찾고 있는 것은 아니의 강간범 '존 G'의 실체는 내부리터가 훌려갈 때 더욱 모호해지며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추론의 전제 또한 흔들리고 말기 때문이다. 즉 미스테리는 해결되보다는 더욱 깊은 불확실성의 놀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순회적인 이중시간 구조를 창조적으로 변형한 끝 아니라 수수께끼의 해결보다는 인간의 생활한 운명을 강조하는

숙명론자이고 어두운 세계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메멘토'는 '이중배상'이나 '차이나타운'과 같은 필름 느와르를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계승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순전히 미국적 장르로 속하는 필름 느와르는 1940년대라는 우수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영화들을 기리기는 시사적 개념에서 출발한다. 디테일을 시도로 하여 필름 느와르는 타 장르와 마찬가지로 통합, 발전, 소외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한 작품을 양산해 내놓는다. 이제 필름 느와르는 시사적 개념이었기보다는 내러티브 스타일과 성격화를 통해 악동같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영향과 양식으로 인식된다. '메멘토'는 이러한 필름 느와르의 양식을 재치있게 변주하면서 기존의 느와르보다 더욱 암울하고 극단적인 회의주의의 세계를 창조해낸다. 주인공 레너드도 벌타의 베이지 색 스퍼레이드처럼 자신을 풀라인 불길한 세계를 의심의 눈초리로 비비보고 영광의 미하고 해설하며 규정한다. 그러나 레너드에게 생 스퍼레이드에게서 구현되는 소박한 개인주의자나 고독한 실존주의자로서 면모를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흐트러진 퍼즐처럼 정체성이 완전히 조각난 인물이기 때문이다. 기억의 유효기간이 15분인 그가 유일하게 믿는 것은 자신이 써놓은 메모, 은행에 새겨놓은 문신, 그리고 스냅사진뿐이다. 그러나 과연 그것들은 믿을만한 객관적 정보인가? 영화는 후반부에서 여전히 사실의 기록이라고 여겨져 왔던 것이 레너드의 둘째적인 감

양정호
(서장·영화 워)

환장

생명 지우는 대기가
이 하나 해 낸는 강보다
더 쌓.....
어린 세상이 삶다.

비워지는 진과 아개등무하고
흔숨 짓는 길에
한숨 짓는.....
어린 세상이 삶다.

하늘에 걸린 초승달은
달이 밤을 먹은 것인가?
밤이 달을 먹은 것인가?
나가 세상을 살아하는 것인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인가?

나는.....
나는 대암과 함께
또 세상에 뛰어드는.....

쳇...
현장을 노릇이다.

해천(海天)
필자가 이를 밟는 것을 원치 않아 필장으로 개제합니다



우정학
(인문·철학)



사수필

아침에 만나면
빈갑게 인사하던 그 친구의 얼굴.
어느 날 갑자기
그 얼굴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몇수정을 찾은 늦가을.
깔깔리는 바람 속에
흔들리는 물결 속에 비친
그녀석의 얼굴을 보며,
함께 한 시간을 떠올려 봅니다.
-정수장 추모비에서

김천일 기자 demian@lyco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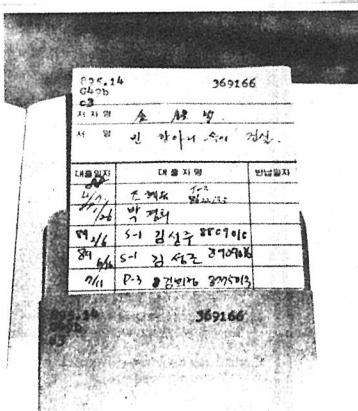
38회 외대문학상 / 18회 외대학술상 공모

20년이 넘도록 당신이 읽은 많은 책들

때론 흥미롭게, 때론 고민하며 밤새워 읽었던 기억들

이제, 그 동안 쌓여온 역량을

외대 학술·문화상에서 마음껏 펼쳐 보십시오



문학상 시(3편 이상)·소설 수필

희곡·평론 분야

학술상 인문·사회·자연과학분야 등

마감 2001년 12월 31일

상금 총 400만원 (문학상·학술상 각각 200만원)

문의 서울 02-961-4152 용인 031-330-4112

E-mail oedaepress@hanmail.net

유의사항 심사용·보관용 2부씩 제출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